

마태복음 11장 25-30절 말씀

-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
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
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
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
- 26 옳소이다
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
-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
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
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
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
-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
다 내게로 오라
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
-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
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
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
-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